

학령기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사회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경란 장현아* †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본 연구는 사회불안의 최초 발병률이 높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사회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대전에 소재한 세 곳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 5, 6학년 남녀 초등학생 49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아동의 성별에 따라 행동억제 기질, 사회불안, 사회지지 모두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세 변인의 상관관계에서는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지지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지는 행동억제 기질, 사회불안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사회지지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지의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중 친구지지가 사회불안의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지지 모두 사회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지지가 사회불안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며 사회지지의 조절효과는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지의 하위변인 중 친구지지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이며 사회지지가 높은 그룹이 사회불안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행동억제 기질, 사회불안, 사회지지

† 이 논문은 김경란(2013)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이 논문의 일부는 2013년 상담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 포스터로 발표되었음.

†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장현아, 대전시 동구 용운동 대전대학교 응용과학관 2316,
Tel : 042-280-2455, E-mail : hyuna@dju.ac.kr

사회불안은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 앞에 노출되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인 두려움을 갖게 되는 증상을 말하며 사회적 환경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가 극심하면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로 발전할 수도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이러한 사회불안의 최초 발병연령은 11.3세-12.3세로 보고되고 있는데, 사회불안 환자의 50%는 12세 이전에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며 자신이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서부터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고 하여(Bourdon et al., 1988; Wittchen & Fehm, 2001) 사회불안이 매우 어린 연령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불안의 아동기 유병률은 약 1% 정도로 이는 불안장애 아동 중 15%에 해당되는 수치이고(Kashani, & Orvaschel, 1990), 평생 유병률이 12.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Kessler et al., 2005). Otto 등(2001)의 연구에서는 사회불안 환자 중 81%가 아동기 불안장애로 진단되었고 성인에서의 불안장애가 아동기 불안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Clark, 2001) 아동기 시절 불안 및 불안장애는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연속성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아동기는 프로이트(Freud)가 말하는 잠복기로서 친구와의 강한 사회적 유대를 확립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정옥분, 박성연, 윤종희, 도현심, 2002) 이 때 사회불안이 높으면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게다가 사회불안은 아동기부터 개인에게 고통을 주고 대부분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향후 사회적 관계나 사람들 앞에서의 발표상황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일상생활 영역에서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양주경, 2007), 초기에 사회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 등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Bruce et al., 2005; Merikangas, Avenevoli, Acharya, Zhang, & Angst, 2002). 특히 정신 병리에 대한 조기 개입과 예방의 효과를 생각할 때 사회불안에 대한 초기 발병 연령대의 연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불안의 최초발병이 시작되는 아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회불안의 발생변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는데, 이 중 다수의 연구가 가장 대표적인 기질적 취약성으로 행동억제 기질에 주목해 왔다(Beidel & Turner, 1998; Neal, Edelmann, Glachan, 2002; Schwartz, Snidman & Kagan, 1999; Biederman et al., 1993). 행동억제 기질은 처음 접하거나 친숙하지 않은 사람, 상황, 혹은 사물을 대할 때 일관적으로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여 상호작용이 감소하는 성향으로(Kagan, 1994; Mick, & Telch, 1998; 양주경 2007 재인용) 처벌 및 위협단서에 반응하여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일종의 심리적 멈춤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행동억제 기질은 불안장애의 위험변인으로 특히 사회불안과 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Mick & Telch, 1998), Schwartz, Snidman과 Kagan(1999)의 장기종단연구에서는 2세 때 행동억제 기질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었던 집단의 61%가 12년 후에도 사회불안을 보고한 반면 행동억제 기질 성향이

학령기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낮은 집단은 27%만이 사회불안을 보고하였다. Muris, Merckelgach, Wessel와 Van de Ven(1999)의 연구에서는 12-14세 아동을 대상으로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장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행동억제 기질 성향이 높은 아동이 불안, 걱정, 우울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행동억제적 아동집단과 비억제적 아동집단, 정상 대조군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신병리의 정도를 평가한 연구에서는(Biederman et al., 1990) 행동억제적 아동의 상당수가 임상적 표본과 비임상적 표본 모두에서 과불안장애와 공포장애, 복합적 불안장애의 발병률이 높았다. 공포증의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행동억제적 아동들이 보고하는 특정 공포 내용은 교단 위에서 말하기 55.5%, 낯선 사람 만나기 44%, 수업시간에 호명 받기 33.3%로 모두 사회불안 환자들이 두려워하는 상황 등이었다. 또한 이러한 양상들은 3년 후에 동일한 아동들을 재평가 했을 때에도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났다(Biederman et al., 1993). Rosenbaum 등 (1991b)의 연구결과에서는 행동억제적 아동들의 부모집단에서 사회공포증 발병률이 현저히 더 높은 반면 단순공포증 또는 광장공포증을 동반한 공황장애의 발병률은 높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이처럼 행동억제가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강력한 기질적 취약성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밝혀졌으며(Biederman et al., 2001; Neal, Edelman, Glachan, 2002),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이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Neal et al., 2002; Schwartz, Snidman, & Kagan, 1999). 회고적 자기보고식 행동억제 기질 척도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시기에 사회적 회피가 높았던 것으로 회상했던 청소년들은 행동억제 기질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불안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4-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Hayward, Killen, Kraemer, & Taylor, 1998). 이 밖에 많은 연구들에서도 행동억제 기질의 아동이 사회불안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Kagan, Reznick, Clarke, Snidman, & Garcia Call, 1984; Neal et al., 2002). 국내 양주경(2007)의 연구에서도 행동억제 기질과 가족 환경, 역기능적 신념, 지각된 불안 통제감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행동억제 기질은 사회불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생애 초기에 발달하는 소인 중 하나라고 할수 있다.

이와 같이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행동억제 기질에 대한 연구는 그 평가 방법이 다르고 여러 가지 방법론적 문제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소 한계를 가진다(문혜신, 2001). 오경자와 양윤란(2003a)의 연구는 사회불안에 행동억제라는 기질적 변인보다는 외상경험이나 부모 양육태도 등 경험적, 환경적 변인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함을 밝혔다. 또한 높은 행동억제 기질을 가진 아동 모두가 사회불안을 보이는 것은 아님을 생각할 때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 사이에 이를 매개하는 중요한 환경적 변인이 영향을 미쳐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Turner, Beidel, & Wolff, 1996). 이는 행동억제 기질을 지녔을지라도 사회적 위축 행동을 보이는데 있어 또래와 교사를 포함한 학교경험이 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보고

(Pfeifer, Goldsmith, Davidson, & Rickman, 2002)와도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의 환경적 변인으로 사회지지를 들고 있는데, 사회불안이 높은 청소년들은 급우들로부터 지지를 적게 받고 사회적 수용도 적어서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지 못한다고 보고되고 있다(La Greca & Lopez, 1998). 사회지지의 의미는 심리학, 정신과학 등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며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가지 지원과 도움 등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즉,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자원을 일컫는 말로 Weiss(1974)는 사회지지를 심리적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적 환경의 산물로 정의하였으며 Caplan(1974)은 개인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속적인 사회적 집합체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사회지지만 '타인들에 의해 제공된 자원'을 일컫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사회지지를 얻게 되는데(김명숙, 1995), 아동은 성인에 비해 사회적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고 성인과는 달리 가족과 친구, 교사 등 제한된 환경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다.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가족, 친구, 교사와의 관계는 심리적 안녕과 건강한 발달 및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지원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지지가 낮거나 결핍된 상태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심리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할 경우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어왔다. 박지원(1985)의 연구에서 사회지지는 불안, 좌절 극복 등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 긍정적인 해결방안으로 도전적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변인으로 사회지지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지기도 하였다(최영숙, 2007). 아동이 주변 사람들인 가족, 친구, 교사에게서 사회지지를 높게 인식할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나고(김명숙, 1995), 성인 입원 환자들의 경우 지각된 사회지지의 수준이 낮은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불안수준이 높았으며(모경빈, 1984), 사회지지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낮았다(이영자, 1995). 이처럼 다양한 연구들이 사회불안의 조절변인으로 사회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강성희, 이재연, 1992; 김향숙, 2006; 심희옥, 1995; 한미현, 1996).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검토 결과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다룬 연구들의 대부분이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아동의 사회불안에 대한 취약변인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도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이 과정에서 사회지지가 어느 정도의 조절력을 가지는지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즉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강력한 생물학적 취약성인 행동억제 기질이 환경적 변인인 사회지지의 조절로 인해 사회불안의 심화를 완충시킬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는 사회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의 특성을 고찰하여 이후 아동상담분야를 발전시키는데

학령기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공하며 사회지지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조절변인의 역할이 어떠한지를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더욱 효과적인 아동상담전략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 사회불안, 사회지지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지지는 어떠한 조절 작용을 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대전시에 거주하는 3개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는 사회불안의 최초 발병 연령이 11.3세-12.3세로 보고 되고 있으며(Wittchen & Fehm, 2001), 처음 초등학교 아동기의 사회불안이 중요한 시기임을 밝힌 (Bruce et al., 2005; Merikangas et al., 2002)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배부한 설문지 총 520부 중 499부를 회수하였고 누락 문항이나 불성실한 응답의 경우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46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아동은 남아 238명(51.4%), 여아 225명(48.6)이었으며, 학년별 구성비는 4학년 143명(30.9%), 5학년 163명(35.2%), 6학년 157명(33.9%)이었다.

측정도구

자기보고식 회고적 행동억제 기질척도(Retrospective Self- Report Inhibition : RSRI)

Reznick, Hegerman, Kaufman, Woods와 Jacobs(1992)의 자기보고식 회고적 행동억제 기질척도를 오경자와 양윤란(2003a)이 우리말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이며,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각 변인별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사회적 회피 .71, 수줍음 .75, 단순공포 .69, 분리불안 .72, 신체화 .67로 전체 .71로 나타났다.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 : SAS-A)

대인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La Greca(1998)이 개발한 청소년 사회불안척도를 오경자와 양윤란(2003a)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수행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문혜신과 오경자(2002)의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척도(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PAI-C)에 포함된 수행불안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

도이고,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각 변인별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대인불안 .94, 수행불안 .87이며 전체 .95로 나타났다.

사회지지 척도(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 SSAS)

Dubow와 Ullman(1989)이 개발한 사회지지 평가 척도를 한미현(1996)이 수정, 보완한 것이다.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각 변인별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친구지지 .87, 가족지지 .93, 교사지지 .89이며 전체 .93으로 나타났다.

분석절차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행동억제 기질, 사회지지, 사회불안 변인에 대한 성차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인의 하위 변인을 남녀 집단별로 나누어 t-test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행동억제 기질, 사회지지,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1단계에 행동억제 기질변인을, 2단계에서는 사회지지 변인을,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행동억제 기질, 사회불안, 사회지지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의 주요변인인 행동억제 기질, 사회불안, 사회지지와 각 하위변인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를 구했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행동억제기질, 사회불안, 사회지지의 기술통계 N = 463

| | 평균 | 표준편차 |
|--------|-------|------|
| 행동억제기질 | 47.15 | 9.99 |
| 사회적회피 | 20.90 | 6.09 |
| 수줍음 | 10.99 | 4.36 |
| 단순공포 | 5.52 | 2.48 |
| 분리불안 | 5.13 | 2.68 |

학령기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 평균 | 표준편차 |
|------|-------|-------|
| 신체화 | 4.60 | 1.97 |
| 사회불안 | 47.56 | 20.26 |
| 대인불안 | 32.60 | 14.74 |
| 수행불안 | 14.95 | 6.90 |
| 사회지지 | 86.69 | 19.17 |
| 친구지지 | 25.18 | 7.54 |
| 가족지지 | 32.72 | 8.41 |
| 교사지지 | 28.79 | 7.76 |

성별에 따른 행동억제 기질, 사회불안, 사회지지의 차이에 대한 분석

아동의 성별에 따라 행동억제 기질, 사회불안 및 사회지지 변인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들에 대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성별에 따른 측정 변인 간의 평균차이

N = 463

| | 성별 | 평균 | 표준편차 | t | |
|----------------|-------|------|------|---------|---------|
| 행동 억제 기질 | 사회적회피 | 남 | 2.93 | .83 | -1.55 |
| | | 여 | 3.05 | .91 | |
| | 수줍음 | 남 | 1.74 | .66 | -2.97** |
| | | 여 | 1.93 | .78 | |
| | 단순공포 | 남 | 1.76 | .78 | -2.15* |
| | | 여 | 1.92 | .87 | |
| | 분리불안 | 남 | 1.60 | .80 | -2.78** |
| | | 여 | 1.83 | .97 | |
| | 신체화 | 남 | 1.51 | .58 | -.94 |
| | | 여 | 1.56 | .73 | |
| 전체 | 남 | 2.07 | .51 | -3.27** | |
| | 여 | 2.22 | .60 | | |
| 사회 불안 | 대인불안 | 남 | 1.65 | .73 | -4.54** |
| | | 여 | 1.99 | .88 | |
| | 수행불안 | 남 | 1.54 | .67 | -3.67** |
| | | 여 | 1.79 | .84 | |

| | 성별 | 평균 | 표준편차 | t |
|----------|----|------|------|---------|
| 전체 | 남 | 1.61 | .66 | -4.57** |
| | 여 | 1.92 | .80 | |
| 친구지지 | 남 | 3.05 | .93 | -2.41* |
| | 여 | 3.26 | .95 | |
| 사회 지지 | 남 | 4.04 | 1.06 | -.99 |
| | 여 | 4.14 | 1.04 | |
| 교사지지 | 남 | 3.41 | .94 | -4.38** |
| | 여 | 3.80 | .97 | |
| 전체 | 남 | 3.50 | .78 | -3.14** |
| | 여 | 3.73 | .80 | |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성별에 따라 행동억제 기질, 사회불안, 사회지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행동억제 기질의 하위변인중 수줍음($t = -2.97, p < .01$), 단순공포($t = -2.15, p < .05$), 분리불안($t = -2.78, p < .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사회적회피($t = -1.55, p > .05$), 신체화($t = -.94, p > .05$)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줍음, 단순공포, 분리불안 모두 남아보다 여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억제 기질 전체를 비교했을 때 남아가 2.07, 남아가 2.22로 남아보다 여아가 행동억제 기질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행동억제 기질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 = -3.27, p < .01$). 사회불안의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대인불안($t = -4.54, p < .01$), 수행불안($t = -3.67, p < .01$)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여아가 1.92 남아가 1.61로 남아보다 여아가 사회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사회불안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 = -4.57, p > .01$). 사회지지의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친구지지($t = -2.41, p < .05$), 교사지지($t = -4.38, p < .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족지지($t = -.99, p > .05$)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점수를 살펴봤을 때 남아는 3.50 여아는 3.73으로 여아가 사회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사회지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 = -3.14, p < .0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독립변인인 행동억제 기질, 조절변인인 사회지지, 종속변인인 사회불안의 각 하위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학령기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표 3>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 = 463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행동억제 기질 | 1 | | | | | | | | | |
| 1. 사회적회피 | | 1 | | | | | | | | |
| 2. 수줍음 | -.13** | | 1 | | | | | | | |
| 3. 단순공포 | -.06 | .42** | | 1 | | | | | | |
| 4. 분리불안 | .02 | .44** | .47** | | 1 | | | | | |
| 5. 신체화 | -.02 | .28** | .19** | .26** | | 1 | | | | |
| 사회불안 | | | | | | | | | | |
| 6. 대인불안 | -.14** | .68** | .41** | .46** | .30** | | 1 | | | |
| 7. 수행불안 | -.20** | .71** | .35** | .33** | .22** | .71 | | 1 | | |
| 사회지지 | | | | | | | | | | |
| 8. 친구지지 | .51** | -.21** | -.03 | .00 | -.12* | -.26** | -.24** | | 1 | |
| 9. 가족지지 | .28** | -.18** | -.07 | -.03 | -.16** | -.18** | -.21** | .40** | | 1 |
| 10. 교사지지 | .36** | -.21** | -.03 | -.02 | -.17** | -.17** | -.22** | .53** | .51** | |

* $p < .05$, ** $p < .01$, *** $p < .001$

행동억제 기질의 하위변인인 수줍음($r = .68, p < .01$), 단순공포($r = .41, p < .01$), 분리불안($r = .46, p < .01$), 신체화($r = .30, p < .01$)는 사회불안의 하위변인인 대인불안과 유의수준 하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수행불안과의 관계에서도 수줍음($r = .71, p < .01$), 단순공포($r = .35, p < .01$), 분리불안($r = .33, p < .01$), 신체화($r = .22, p < .01$)는 유의수준 하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사회적 회피 변인의 경우 행동억제 하위변인 간 상관관계에서 수줍음($r = -.13, p < .01$)과 부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행동억제기질의 하위변인 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행동억제 기질의 하위변인들이 유의수준 하에서 사회지지의 하위변인인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와 부적상관관계를 보인데 반해 사회적 회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박정희(2009), 오경자와 양윤란(2003a), 정지영과 김종남(2011), 장효주(2009)의 연구에서도 부적상관관계를 보이거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보여, 사회적 회피 변인은 추후 검증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불안의 하위변인인 대인불안과 사회지지의 상관관계에서는 친구지지($r = -.26, p < .01$), 가족지지($r = -.18, p < .01$), 교사지지($r = -.17, p < .01$)는 사회불안과 유의수준 하에서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수행불안과 사회지지의 상관관계에서는 친구지지($r = -.24, p < .01$), 가족지지($r = -.21, p < .01$), 교사지지($r = -.22, p < .01$)는 사회불안과 유의수준 하에서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지지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행동억제 기질의 하위변인인 사회적 회피, 수줍음, 신체화, 단순공포, 분리불안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불안의 하위변인인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에 대하여 각각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N = 463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 | β | t | r^2 | F |
|------|-------|------|---------|----------|-------|----------|
| 대인불안 | 사회적회피 | -.06 | -.06 | -1.93 | .51 | 96.42** |
| | 수줍음 | .63 | .56 | 14.45*** | | |
| | 단순공포 | .08 | .09 | 2.20* | | |
| | 분리불안 | .14 | .15 | 3.73* | | |
| | 신체화 | .12 | .10 | 2.74* | | |
| 수행불안 | 사회적회피 | -.10 | -.11 | -3.40*** | .51 | 97.43** |
| | 수줍음 | .72 | .68 | 17.55*** | | |
| | 단순공포 | .06 | .07 | 1.72 | | |
| | 분리불안 | -.01 | -.01 | -.27 | | |
| | 신체화 | .02 | .02 | .57 | | |
| 사회불안 | 사회적회피 | -.07 | -.09 | -2.75*** | .57 | 125.54** |
| | 수줍음 | .66 | .64 | 17.69*** | | |
| | 단순공포 | .08 | .08 | 2.34* | | |
| | 분리불안 | .09 | .10 | 2.81* | | |
| | 신체화 | .09 | .08 | 2.34* | | |

* $p < .05$, ** $p < .01$, *** $p < .001$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F값이 125.54 ($p < .01$)로 유의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적회피, 수줍음, 단순공포, 분리불안이며, 수줍음($\beta = .64, p < .001$), 단순공포($\beta = .08, p < .05$), 분리불안($\beta = .10, p < .05$), 신체화($\beta = .09, p < .05$)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57%($r^2 = .57$)로 나타났다.

행동억제 기질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F값이 96.42 ($p < .01$)로 유의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인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수줍

학령기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음, 단순공포, 분리불안, 신체화이며, 수줍음($\beta = .56, p < .001$), 단순공포($\beta = .09, p < .05$), 분리불안($\beta = .15, p < .05$), 신체화($\beta = .10, p < .05$)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51%($r^2 = .51$)로 나타났다. 수행불안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F 값은 $(97.43(p < .01))$ 로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설명력은 51%($r^2 = .51$)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적회피($\beta = -.11, p < .001$)와 수줍음($\beta = .68, p < .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지가 아동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지지가 아동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지지의 하위변인인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불안의 하위변인인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사회지지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N = 463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 | β | t | r^2 | F |
|------|------|------|---------|----------|-------|---------|
| 대인불안 | 친구지지 | -.19 | -.22 | -4.07*** | .07 | 12.30** |
| | 가족지지 | -.07 | -.09 | -1.68 | | |
| | 교사지지 | -.01 | -.01 | -1.15 | | |
| 수행불안 | 친구지지 | -.13 | -.16 | -2.94*** | .07 | 13.11** |
| | 가족지지 | -.08 | -.11 | -2.11* | | |
| | 교사지지 | -.06 | -.08 | -1.34 | | |
| 사회불안 | 친구지지 | -.17 | -.21 | -3.98*** | .079 | 14.28** |
| | 가족지지 | -.07 | -.10 | -1.95 | | |
| | 교사지지 | -.03 | -.03 | -.57 | | |

* $p < .05$, ** $p < .01$, *** $p < .001$

사회지지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대인불안에 있어서는 친구지지($\beta = -.22, p < .0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7%($F = 12.3, p < .01$)로 나타났다. 또한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변인으로는 친구지지($\beta = -.16, p < .001$)와 가족지지($\beta = -.11, p < .05$)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7%($F = 13.11, p < .01$)로 나타났다. 대인불안에 있어서는 친구지지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수행불안은 친구지지와 가족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지지의 조절효과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지지의 조절효과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상호작용변인을 투입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불안에 대하여 행동억제 기질변인을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사회불안에 사회지지 변인을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지지의 조절변인을 투입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과의 관계에서 사회지지의 조절효과 N = 463

| 모델 | 독립변인 | β | r^2 | Δr^2 | F |
|------|------|---------|-------|--------------|----------|
| 1 | 행동억제 | .71** | .51 | | 474.30** |
| | 행동억제 | .59** | | | |
| 사회불안 | 2 | 사회지지 | .52 | .02 | 256.27** |
| | 행동억제 | .75** | | | |
| 3 | 사회지지 | .10 | .53 | .01 | 175.20** |
| | 상호작용 | -.30** | | | |

* $p < .05$, ** $p < .01$, *** $p < .001$

분석결과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지지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호작용변인을 투입하였을 경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30, p < .01$) 설명력은 53%이다($F = 175.20, p < .01$).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 하위변인의 관계에서 사회지지의 조절효과

위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기 위해 사회불안의 하위변인인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불안의 하위변인인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에 대하여 행동억제 기질변인을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에 사회지지를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지지의 조절변인을 투입하였으며 결과는 표 7과 같다.

학령기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표 7>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 하위변인과의 관계에서 사회지지의 조절효과 N = 463

| | 모델 | 독립변인 | β | r^2 | Δr^2 | F |
|------|----|------|---------|-------|--------------|----------|
| 대인불안 | 1 | 행동억제 | .69** | .47 | | 412.89** |
| | 2 | 행동억제 | .66** | .48 | .01 | 218.05** |
| | | 사회지지 | -.12** | | | |
| | 3 | 행동억제 | .74** | .49 | .00 | 146.99** |
| | | 사회지지 | .00 | | | |
| | | 상호작용 | -.15 | | | |
| 수행불안 | 1 | 행동억제 | .62** | .39 | | 290.69** |
| | 2 | 행동억제 | .59** | .41 | .03 | 161.29** |
| | | 사회지지 | -.16** | | | |
| | 3 | 행동억제 | .75** | .42 | .01 | 113.74** |
| | | 사회지지 | .10 | | | |
| | | 상호작용 | -.30* | | | |

* $p < .05$, ** $p < .01$, *** $p < .001$

분석결과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의 하위변인인 수행불안과의 관계에서 사회지지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변인을 투입하였을 경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beta = -.30$, $p < .01$), 설명력은 42%로 나타났다($F = 113.74$, $p < .01$).

행동억제 기질의 하위변인과 대인불안과의 관계에서 사회지지의 조절효과

행동억제 기질의 하위변인인 사회적회피, 수줍음, 단순공포, 분리불안, 신체화와 대인불안과의 관계에서 사회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결과 행동억제 기질의 하위변인인 단순공포와 분리불안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지지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억제 기질의 하위변인 중 단순공포와 분리불안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공포와 사회지지의 상호작용변인을 투입하였을 경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54$, $p < .01$) 설명력은 22%로 나타났다($F = 23.22$, $p < .01$). 그리고 분리불안과 사회지지의 상호작용변인을 투입하였을 경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57$, $p < .01$) 설명력은 28%로 나타났다($F = 23.22$, $p < .01$).

<표 8> 행동억제 기질의 하위변인과 대인불안과의 관계에서 사회지지의 조절효과 N = 463

| 모델 | 독립변인 | β | r^2 | Δr^2 | F |
|----|-------|---------|-------|--------------|----------|
| 1 | 사회적회피 | -.14** | .02 | | 9.14** |
| 2 | 사회적회피 | -.03 | .06 | .04 | 15.58** |
| | 사회지지 | -.24** | | | |
| | 사회적회피 | .02 | | | |
| 3 | 사회지지 | -.21 | .06 | .00 | 10.38** |
| | 상호작용 | -.07 | | | |
| 1 | 수줍음 | .68** | .46 | | 401.30** |
| 2 | 수줍음 | .33** | .47 | .00 | 206.26** |
| | 사회지지 | -.09* | | | |
| | 수줍음 | .73** | | | |
| 3 | 사회지지 | -.05 | .47 | .00 | 137.35** |
| | 상호작용 | -.08 | | | |
| 1 | 단순공포 | .41** | .16 | | 91.05** |
| 2 | 단순공포 | .39** | .21 | .05 | 63.65** |
| | 사회지지 | -.23** | | | |
| | 단순공포 | .88** | | | |
| 3 | 사회지지 | .01 | .22 | .01 | 45.72** |
| | 상호작용 | -.54* | | | |
| 1 | 분리불안 | .46.** | .21 | | 122.94** |
| 2 | 분리불안 | .45** | .27 | .06 | 84.30** |
| | 사회지지 | -.24** | | | |
| | 분리불안 | .97** | | | |
| 3 | 사회지지 | -.02 | .28 | .01 | 60.16** |
| | 상호작용 | -.57** | | | |
| 1 | 신체화 | .30** | .09 | | 46.58** |
| 2 | 신체화 | .27** | .13 | .04 | 34.52** |
| | 사회지지 | -.20** | | | |
| | 신체화 | .40* | | | |
| 3 | 사회지지 | -.12* | .13 | .00 | 23.22** |
| | 상호작용 | -.15 | | | |

* $p < .05$, ** $p < .01$, *** $p < .001$

행동억제 기질의 하위변인과 수행불안과의 관계에서 사회지지의 조절효과

행동억제 기질의 하위변인인 사회적 회피, 수줍음, 단순공포, 분리불안, 신체화와 수행불안

학령기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과의 관계에서 사회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행동억제 기질의 하위변인과 수행불안과의 관계에서 사회지지의 조절효과 N = 463

| 모델 | 독립변인 | β | r^2 | Δr^2 | F |
|----|-------|---------|-------|--------------|----------|
| 1 | 사회적회피 | -.20** | .04 | | 20.09** |
| 2 | 사회적회피 | -.10 | .08 | .04 | 21.16** |
| | 사회지지 | -.23** | | | |
| | 사회적회피 | -.03 | | | |
| 3 | 사회지지 | -.18 | .08 | .00 | 14.12** |
| | 상호작용 | -.10 | | | |
| 1 | 수줍음 | .71** | .50 | | 460.74** |
| 2 | 수줍음 | .68** | .51 | .01 | 240.79** |
| | 사회지지 | -.11** | | | |
| | 수줍음 | 1.09** | | | |
| 3 | 사회지지 | .12 | .52 | .01 | 165.82** |
| | 상호작용 | -.43** | | | |
| 1 | 단순공포 | .35** | .12 | | 64.48** |
| 2 | 단순공포 | .34** | .19 | .07 | 53.68** |
| | 사회지지 | -.26** | | | |
| | 단순공포 | .68** | | | |
| 3 | 사회지지 | -.09 | .19 | .01 | 37.27** |
| | 상호작용 | -.38 | | | |
| 1 | 분리불안 | .33** | .11 | | 55.23** |
| 2 | 분리불안 | .32** | .18 | .07 | 50.48** |
| | 사회지지 | -.27** | | | |
| | 분리불안 | .74** | | | |
| 3 | 사회지지 | -.09 | .18 | .01 | 35.72** |
| | 상호작용 | -.46* | | | |
| 1 | 신체화 | .22** | .05 | | 22.67** |
| 2 | 신체화 | .17** | .10 | .06 | 26.96** |
| | 사회지지 | -.25** | | | |
| | 신체화 | .21 | | | |
| 3 | 사회지지 | -.22* | .10 | .00 | 17.96** |
| | 상호작용 | -.05 | | | |

* $p < .05$, ** $p < .01$, *** $p < .001$

분석결과 행동억제 기질의 하위변인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단순공포와 분리불안이 사회지지와 상호작용하여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억제 기질의 하위변인 중 수줍음과 분리불안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줍음과 사회지지의 상호작용변인을 투입하였을 경우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beta = -.43, p < .01$) 설명력은 52%로 나타났다($F = 165.82, p < .01$). 그리고 분리불안과 사회지지의 상호작용변인을 투입하였을 경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46, p < .05$) 설명력은 18%로 나타났다($F = 35.72, p < .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의 최초 발병확률이 높은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지지가 학령기 아동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와 관련된 논의점, 임상 현장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변인들 간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살펴보면 행동억제 기질, 사회불안, 사회지지 변인 모두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행동억제 기질 및 사회불안이 높게 나타난 선행 연구들(Wittchen, Stein, & Kessler, 1999; 박정희, 2009; 신혜린, 이기학, 2008)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성별에 따른 행동억제 기질, 사회불안, 사회지지에 있어서의 유의미한 차이는 아동의 사회불안을 다룰 경우 성별에 따라 차별화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오경자와 양윤란(2003a)의 연구에서는 수줍음, 신체화, 단순공포, 분리불안 4개의 하위변인 모두에서 성별 차이를 보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수줍음, 단순공포, 분리불안에서만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에 따라 사회불안 아동이 인지적 전략을 다르게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박정희, 2009)도 있으므로 추후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보다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대한 중요한 기질적 변인임을 밝혔으며, 본 연구에서도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선행연구들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동억제 기질의 하위변인 중 사회적 회피 변인은 선행연구에서도(박정희, 2009; 정지영, 김종남, 2011; 장효주, 2009) 부적상관관계를 보이거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 추후 검증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사회지지의 하위변인 중 친구지지가 사회불안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또래 친구로부터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사회불안이 더 높았고, 사회 불

학령기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안이 높은 청소년은 급우들로부터 지지를 적게 받고 사회적 수용도 적어서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La Greca, & Lopez, 1998)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환경특성 상 학교가 아동 생활의 중심이 되며 또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가족이나 교사보다는 친구지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사회불안에 있어서 지지적인 친구관계를 향상시켜주는 것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지지는 사회불안과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지지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의 상관관계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정희(2009)의 연구와 일치하며 사회지지와 사회불안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 결과는 황명숙(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아동 및 청소년기의 행동억제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질적 변인임을 확인한 기존의 연구들(박정희, 2009; 장효주, 2009)과 일치된 결과이다. 그러나 김지원(2009)의 연구에서 수줍음과 신체화가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수줍음, 단순공포, 분리불안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수줍음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은 영향력이 적어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행동억제 기질의 하위변인 중 수줍음이 사회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김지원(2009)과 호유나(200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넷째,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사회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지지가 낮은 집단 보다 높은 집단이 아동의 사회불안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경우보다 사회불안 수준이 낮은 경우 사회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김현정, 2007; 이선환, 2007; 조미영, 1999)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지지는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최은비(2009)와 최영숙(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사회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수행불안을 덜 느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동억제 기질이 높은 집단이 사회지지를 받음으로 인해 사회불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행동억제 기질이 있는 아동들은 사회 접촉을 제한하고 좁은 또래 관계망을 갖게 되어 사회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가 줄어들고 사회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Jones, Briggs, & Smith, 1986). 그러나, 행동억제가 생물학적 기질임에도 불구하고(Biederman et al, 1990) 환경적 영향에 의해 상호작용하면서 지속되고 강화되는 것이므로 행동억제성향이 높은 아동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환경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그 방법 중 하나로 또래, 가족, 교사와 같은 다양한 지지 제공자의 역할이 사회불안을 경감시키고 사회적응을 돕는데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사회불안의 정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사회불안이 높은 임상 집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대전에 위치한 세 곳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아동 전체에 일반화하기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과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셋째, 종단적 연구를 통해 아동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지지 변인을 추적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오경자 와 양윤란(2003b)의 연구에서 청소년 초기와 후기의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에서 청소년 후기로 갈수록 대인불안이 유의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른 사회지지의 조절효과가 검토된다면 아동의 성장 및 발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성과 변화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불안의 최초 발병 연령으로 알려진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연구들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사회불안의 발생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선행연구들에서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학령기 아동의 사회지지 변인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사회불안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강성희, 이재연 (1992). 아동의 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의 스트레스 완충효과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13(2), 175-188.
- 권영배 (1993). 자기표현훈련이 초등학교 아동의 대인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은미 (2006). 내현적 자기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 (1995).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 (1999). 사회공포증 집단의 사회적 자기처리 및 안전행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 (2000). 사회공포증-남 앞에 나서기가 힘들어요. 서울 : 학지사.
- 김지원 (2009).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또래관계기술의 중재효과.

학령기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향숙 (2006). 아동의 스트레스가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정 (2007). 완벽주의에 대한 인지적 매개모형의 탐색과 인지행동치료의 효과.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모경빈 (1984). 성인 환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불안의 관계에 관한 분석적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혜신 (2001). 또래의 괴롭힘이 청소년기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연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문혜신, 오경자 (200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29-443.

박선영 (2003). 사회불안 유발상황의 구분 및 사회불안 하위유형의 차별적 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정희 (2009). 아동기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 :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정희, 박정미 (2010).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시험불안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31(6), 125-134.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혜린, 이기학 (2008). 성인애착과 성별에 따른 대학생 사회불안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2
7(1), 139-159.

심희옥 (1995).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 및 부적응. 아동학회지, 16(1), 89-93.

양주경 (2007).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기제 : 행동억제기질, 가족환경, 역기능적 신념, 불안
통제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경자, 양윤란 (2003a).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 : 행동억제 기
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 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2(3), 557-576.

오경자, 양윤란 (2003b).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I : 6개월 추적조사.
한국심리학회지, 22(3), 557-597.

이선환 (2007).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아동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영자 (1995).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효주 (2009). 청소년의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모양육태도의 중재. 숙명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옥분, 박성연, 윤종희, 도현심 (2002). 걸음마기 아동의 행동억제 :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

- 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4), 71-88.
- 정지영, 김종남 (2011). 중학생의 우울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행동억제 기질 간의 관계 : 성차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2), 227-254.
- 조미영 (1999). 가정의 경제적 불안, 부모의 우울,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숙 (2007). 비합리적 신념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비 (2009).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과 사회적 지지가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호유나 (2004). 청소년의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명숙 (2007).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사회불안의 관계.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4th addition)*. Washington, DC : Author.
- Beck, A. T., & Clark, D. A. (1988). Anxiety and depression : An information processing perspective. *Anxiety Research*, 1(1), 23-36.
- Beidel, D. C., & Turner, S. M. (1998). At risk for anxiety : I Psychopathology in the offspring of anxious par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6(7), 918-924.
- Biederman, J., Hirshfeld-Becker, D. R., Rosenbaum, J. F., Herot, C., Friedman, D., Snidman, N., Kagan, J., & Faraone, S. V. (2001). Further evidence of association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social anxiety in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 1673-1679.
- Biederman, J., Rosenbaum, J. F., Bolduc-murphy, E. A., Faraone, S. V., Chaloff, J., Hirshfeld, D. R., & Kagan, J. (1993). A 3-year follow-up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behavioral inhibi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4), 814-821.
- Biederman, J., Rosenbaum, J. F., Hirschfeld, D. R., Faraone, S. V., Bolduc, E. A., Gersten, M., Meminger, S. R., Kagan, J., Snidman, N., & Reznick, J. S. (1990). Psychiatric correlates of behavioral inhibition in young children of parents with and without psychiatric disorder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7(1) 21-26.

학령기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Bourdon, K. H., Boyd, J. H., Rae, D. S., Burns, B. J., Thompson, J. W., & Locke, B. Z. (1988). Gender differences in phobias: Results of the ECA community surve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3), 227-241.
- Bruce, S. E., Yonkers, K. A., Otto, M. W., Eisen, J. L., Weisberg, r. B., Pagano, M., Shea, T. M., & Keller, M. B. (2005). Influence of psychiatric comorbidity on recovery and on recurrence in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ocial phobia, and panic disorder : A 12-year prospective stud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2*(6), 1179-1187.
- Caplan, (1974). *Support System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Lectures on Concept Development*, New York : Behavioral Publications.
- Clark, D. M. (2001). A cognitive perspective on social phobia. In W. R, Crozier, L., Alden, *International handbook of social anxiety: Concepts, research and interventions relation go the self and shyness*(pp. 405-430). New York : John Wiley & Sons Ltd.
-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 Hayward, C., Killen, J. D., Kraemer, H. C., & Taylor, C. B. (1998). Linking self-reported childhood behavioral inhibition to adolescent social phobia.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7*(12), 1308-1316.
- Jones, W. H., Briggs, S. R., Smith, T. G. (1986). Shynes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3), 629-639.
- Kagan J., (1994). *Galen's prophecy: Temperament in human nature*. New York: Basic Books.
- Kagan, J., Reznick, J. S., Clarke, C., Snidman, N., & Garcia Coll, C. (1984). Behavioral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Child development, 55*, 2212-2225.
- Kashani, J. H., Orvaschel, H. (1990). A community study of anxiet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7*(3). 313-318.
- Kessler, R. C., Berglund, P., Demler, O, Jin, R., Merikangas. K. R., & Walters, E. E. (2005). Lifetime prevalence and age-of-onset distributions of DSM-IV disorder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6), 593-602.
- La Greca, A. M., & Lopez, N. (1998). Social anxiety among adolescents : Linkages with peer relations and friendshi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2), 83-94.
- La Greca, A, M. (1998). *Manual for the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 Miami, FL : Author.
- Merikangas, K. R., Avenevoli, S., Achayya, S., Zhang, H., & Angst, J. (2002). The spectrum of social phobia in the Zurich cohort study of young adults. *Biological Psychiatry*, 51(1), 81-91.
- Mick, M. & Telch. M. J. (1998). Social anxiety and history of behavioral inhibition in young adul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1), 1-20.
- Muris, P., Merckelgach, H., Wessel, L., & Van de Ven, M. (1999). Psychopathological correlates of self-reported behavioral inhibition in normal childre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7(6), 575-584.
- Neal. J. A., Edelman, R. J., & Glachan, M. (2002). Behavioural inhibition and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Is there a specific relationship with social phobia?.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1(4), 361-374.
- Otto, M. W., Pollaxk, M. H., Maki, K. M., Gould, R. A., Worthington, J. J., Smoller, J. W., & Rosenbaum, J. F. (2001). Childhood history of anxiety disorders among adults with social phobia : rates, correlates, and comparisons with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Depression and Anxiety*, 14(4), 209-213.
- Pfeifer, M., Goldsmith, M. M., Davidson, R. J., Rickman, M. (2002). Continuity and change in inhibited and uninhibit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73(5), 1474-1485.
- Reznick, J. C., Hegeman, I. M., Kaufmann, E. R., Woods, S. W., & Jacobs, M. (1992). Retrospective and concurrent self- report of behavioral inhibition and their relation to adult mental health.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2), 301-321.
- Rosenbaum, J. F. Biederman, J., Hirshfeld. D. R., Bolduc, E. A., & Chaloff, J. (1991a). Behavioral inhibition in children: Apossible precursor to panic disorder and social phobia. *Jornal of Clinical Psychiatry*, 52(11), 5-9.
- Rosenbaum, J. F. Biederman, J., Hirshfeld, D. R., Bolduc, E. A., Faraone, S. V., Kagan, J., Snidman, N., & Rezbick, J. S. (1991b). Further evidence of an association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anxiety disorders : Results from a family study of children from a non-clinical sample.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25(1-2), 49-65.
- Schwartz, C., Snidman, N., & Kagan, J. (1999). Adolescent social anxiety as an outcome of inhibited temperament in child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8(8), 1008-1015.
- Turner, S. M., Beidel, D. C., & Wolff, P. L. (1996). Is behavioral inhibition related to

학령기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anxiety disorder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6(2), 157-172.

Weiss, R. S. (1974).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s*. Quoted in Rubin, Z. *Doing unto Other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Wittchen, H., Stein, M., & Kessler, R. C. (1999). Social fears and social phobia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Prevalence, risk factors and co-morbidity. *Psychological Medicine*, 29(2), 309-323.

Wittchen, H. U., & Felm, L. (2001). Epidemiology, patterns of comorbidity, and associated disabilities of social phobia. *The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4, 617-641.

Wortman, C. B. (1984). Social support and the cancer patient :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Cancer*, 53(10), 2339-2362.

[원고접수일: 2013. 08. 31 / 수정원고접수일: 2013. 10. 24 / 게재결정일: 2013. 11. 11]

The Effects of Behavioral Inhibition on Social Anxiety in School-aged Children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Gyeong Ran Gim Hyun A Chang

Department of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Children, Daejeon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social anxiety school-age children. Data were collected from 499 4th-6th graders across three different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Daejeon. The study revealed that behavioral inhibition, social anxiety, and social support level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girls' group. Concerning correlations among the three variables, it was revealed that behavioral inhibition and social anxiety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higher the social support, the lower the social anxiety. It was also revealed that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behavioral inhibition and social anxiety, with the higher the social support, the lower the social anxiety. Concerning subordinating factors, friend support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interpersonal and performance anxieties. Finally, both behavioral inhibition and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social anxiety. Additionally,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social anxiety showing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fluenced performance anxiety. Confirmation was made, among other subordinating social support factors, that the friend support had the greatest influence, and groups with high social support displayed lower social anxiet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behavioral inhibition, social anxiety, social support